중국 동부의 방직 기업 - 중서부 지역으로의 이동 활발화

중국의 동부 연해 지역의 방직 기업들이 2006년 들어서부터 중서부 내륙 지역인 중경(重慶), 안휘(安徽), 신강(新疆) 등으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박양집단(博洋集團)은 숙주(宿州) 방직창(紡織廠)을 합병하면서 수억 위안을 투자하여 생산 능력을 10만 추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유과집단(維科集團)은 무한(武漢)의 일면집단(一綿集團)을 전부 매수(買收)할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부 방직업이 중서부로 산업을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영파(寧波)의 방직 기업은 큰 세력으로 되고 있다.

약 1년 전부터 산업 체인을 늘리기로 계획하고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찾기 시작하였고, 박양집단은 말하고 있다. 영파박양집단은 안휘성 숙주시 '화원(華源)방직유한공사'를 합병 대상으로 내정하고, 20년이 넘는 역사의 국유기업을 사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숙주화원의 전신인 '안휘숙주홍봉(鴻鵬)집단'은 1984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국유 기업으로서 종업원은 5천 명이 넘으며, 총 자산은 2억 4천 4백만 위안이고, 주력 상품은 면포와 어패럴 제품이다. 수출입 경영권과 면화 구매권을 갖고 있으며, 생산 능력은 8만 추이고, 2005년의 판매고는 3억 위안 정도에 이르고 있다.

또 하나의 영파시의 방직 기업 '유과집단'도 무한의 '일면집단'을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무한국면(武漢國綿) 일(一)、삼(三)、육(六) 공장을 다시 편성하여 새로 생긴 '무한일면집단'은 생산 능력이 20만 추이다. 이 회사는 무한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武漢市國有資産監督管理委員會)가 제도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8개 기업 중의 하나이다.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적합한 재편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아과이(雅戈爾)집단'이 서부로 옮기려는 것은 늦지는 않았다. 공업 단지를 중경으로 옮기는 것은 이미 끝났다. 이 집단이 '중경 다원(茶園)공업 단지'의 자사 공장에 1억 위안을 투자함으로써 많은 절강(浙江) 어패럴 기업 중에서 서부 공장 설립 제1호가 되었다. 이 집단의 산업 이전으로 고급 셔츠 원단 공장, 양모 방직 공장, 단추、포장、종이 박스 등의 부속 자재 메이커들도 중경으로 빠르게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 장소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도

중국 방직공업협회 신문 센터는 동부의 방직업이 중서부로 옮기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되고 있다. 동서의 우위성을 서로 보완하는 것은 중국이 방직 대국에서 강국으로 바뀌어 나가는 데 있어 유리하다. 그러나 단지 장소만 옮기는 데 그치지 말고 산업의 그레이드 업을 이루도록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방직 산업 구조 조정과 산업 그레이드 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의견 통지를 발표하였다.

시장이 발전해 나갈 방향으로서 기업의 매수 합병、재편성을 빠르게 진행한다. 동부의 방직 기업에 의한 중서부 기업의 합병、매수와 산업 집중도를 올리도록 지원한다. 동부나 중서부가 함께 발전하도록 하여, 산업의 지역 배치를 개선한다. 연해 지방과 중심 도시는 면 방직、화학 섬유 제품의 생산 능력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패션、브랜드, 연구 개발 디자인、시장 지배력 등으로 발전한다. 중서부는 노동력、원재료、토지 등의 풍족한 자원을 살려, 노동 집약 가공 제조업을 발전시키며 중심 도시나 연해 지방, 국외로부터 산업을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방직 산업의 연구 개발 투자는 판매고의 불과 0.3%이며, 기술 가치가 높은 설비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수출은 OEM 가공을 주도하여 독자 브랜드가 국제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겨우 시작일 뿐이다. 중국의 방직 기업은 소규모이면서도 분산된 상태이며, 대기업도 코어 기술이나 국제적인 자원 배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 산업 집중도를 높여 기업이 발전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국 방직 기업의 브랜드 확립과 기술 설계 개발에 유리하게 되어, 섬유 제품의 무역 마찰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외에 국제 가격 교섭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산업 집중도는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 집중도의 향상은 할당액의 집중 이용에도 유리하여 분산 낭비를 막는 데도 유리하다.♣